

청남대 다자녀 가족캠프 운영계획(안)

(지역자원활용) 청남대 개방에 따른 청남대 내 숙박, 자연, 역사 자원 활용
(소통강화) 도내 다자녀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
소통, 공감, 추억 만들기 프로그램 제공
(출생률제고) 다자녀 가정 의견 청취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 경험 자원 활용

I 개 요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다행다복(多幸多福) ※ 명사 : 운이 좋고 복이 많음
- 일정 : 7월 12(금)~13(토), 1박 2일
- 장소 : 청남대 대통령별장 본관
- 대상 : 충북 도내 다자녀 가구 중 6가구, 약 40명
*인구감소지역(행안부 지정, ' 21.10) 당 1가구 시·군 추천
*부모(2인) 참여 필수, 3자녀 이상 우선 선정
- 지역별 모집가구 수

총 가구수	지역별					
	제천시	괴산군	보은군	옥천군	영동군	단양군
6	1	1	1	1	1	1

- 주요내용 ※ 주요내용은 참여자 모집 완료 후, 자녀 연령층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 - (프로그램) 공예(무드등 만들기), 체험(싱잉볼), 소통(다자녀경험) 등
 - (역사교육) 본관 관람 및 청남대 역사교육
 - (별빛야행) 반딧불이 체험
 - (예술공연) 연주, 공연 등
 - (숲 체험) 봉안탑 산책, 숲해설 등
- 참가비 : 자부담 : 1인당 1만원 예정 (단, 미취학 아동은 자부담 제외)

II 세부 프로그램(안)

□ 1일차

일	시간		소요 (분)	내용	장소	비고
	부터	까지				
1 일 차	14:00	14:20	20'	웰컴티와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	별장본관	-
	14:20	15:00	40'	숙소배정	-	-
	15:00	17:00	120'	체험 프로그램	전문강사	-
	17:00	18:00	60'	공예 프로그램	담당자	-
	18:00	19:00	60'	석식 및 휴식	-	-
	19:00	20:00	60'	본관 관람 및 청남대 역사 교육	운영팀장	-
	20:00	21:00	60'	별빛야행	담당자	-
	22:00	-	-	문화예술공연	공연자	-

□ 2일차

일	시간		소요 (분)	내용	장소	비고
	부터	까지				
2 일 차	7:00	8:00	60'	숲체험 교육	숲해설사	-
	8:00	8:30	30'	짐정리 및 퇴실	-	-
	8:30	9:30	60'	조식 및 설문지 작성	-	-
	9:30	11:00	90'	자유관람	-	-

※ 세부 프로그램은 참가대상 및 인원 확정 후,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청남대 다자녀 가족 캠프 전 일정 <KBS청주 지금충북은> 프로그램 취재 약 10분 송출 예정

Ⅲ 유의사항

- 포함사항
 - 1일차 석식, 2일차 조식, 입장료, 주차료, 교육재료비, 강사비, 숙박료, 안전보험료 등
- 숙박
 - 숙박은 청남대 내 대통령별장 본관 또는 대통령별장 별관에서 예정.
 - 청남대 내 숙박시설의 경우 1개실 당 최대 숙박 인원이 2-3명인 관계로,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1가족 당 2-3개실이 배정될 수 있음.
 - 또한, 숙박동(본관 또는 별관)은 진흥원 측에서 임의 배정
- 자부담 금액
 - 캠프 참가비 1인 1만원 자부담
(5인 가족의 경우 5만원 자부담. 단,미취학 아동 자부담 제외)
- 중도취소 및 환불
 - 중도취소 및 환불자제 요청(캠프 시작일 3일 전(7.9일까지) 취소 의사 전달 시, 환불 가능. 그 이후 환불 불가능
- 안전
 - 음식 알레르기, 건강 문제,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 전 진흥원에 사전 연락 요망
- 캠프 참여 공문
 - 체험학습 신청서 관련 학교 제출용 캠프 참여 공문이 필요한 경우 발급 가능
- 프로그램 구성
 - 참여인원 확정 및 연령층 파악 후, 프로그램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- 개인준비물
 - 유모차, 개인 상비약 등 이외 자세한 안내사항은 참여자 확정 후, 개별 안내 예정
- 기타사항
 - 건강 : 무더위 예상, 청남대 프로그램 장소별 이동 시, 도보로 이동 예정.
 - 주차 : 청남대 내 주차 가능(주차료 지원) 청남대 내에서는 도보 이동.
 - 예산 및 인원 제한에 따라 조부모님 참여 불가. 캠프 대상은 부모 및 자녀로 제한
 - 언론 방송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 캠프 운영 사진, 영상 보도 가능. 방송촬영 및 초상권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신청 요망.